



Greetings

신년사

어려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미야흐로 세상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지식 정보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인프라의 중심기관으로 기존의 산업기술정보원(KINITT)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통합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탄생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은 21세기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린 양 기관 통합의 진통 끝에 태어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은 그

래서 더욱 소중한 기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통합논의 과정중 많은 어금과 고통도 따랐지만 이번 기관통합은 21세기의 첫날을 맞이하는 날을 기점으로 태어났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아마도 자의든 타의든 혹은 우연이든 KIST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끌어지고 가라는 시대적 사명이자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논의중 겪었던 상호간의 갈등과 어금은 KIST가 시대의 사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양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월·일을 만들어 의미를 두는 것은 지난날의 성과와 미진함을 돌아보며 보다 나은 미래를

실제하기 위한 성실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사년(丙申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태을 신(辛)은 고통을 의미하고 범 사(巳)는 몸을 나타내는 기(己)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 해는 고통을 인내하며 범의 슬기와 지혜가 모두 모여져 새로운 영광을 창출해 내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올 해를 연구원 모든 구성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KIST가 21세기 우리 나라 지식정보화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정보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것자 합니다. 이에 저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연구사업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율생산 서비스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즉, 정보의 생성·입력단계부터 시스템적으로 연계하여 디지털화된 정보가 자동으로 DB화되는 전자정보화체제와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를 직접 연계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국제협력 강화로 해외정보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종합서비스하는 Web-Portal 서비스 체계 구축과 과학기술정보의 Clearing-House 기능 및 모든 과학기술정보의 우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첨단 국가전자도서관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기존 자료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텍스트 위주에서 점차 전자자료체제로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하며 초고속망을 통해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첨단 전자도서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지역정보센터를 지역지식인프라센터로 확대·발전시켜겠습니다. 기존의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지역응답컴퓨팅센터기능과 초고속정보망서비스의 기능을 추가한 확대·발전된 지역정보센터의 개념인 지역지식인프라센터로 육성·발전시켜 지역정보회의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정보분석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문가정보 분석 그룹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외 과학·기술·산업동향의 신속한 수집 및 분석 서비스와 정보분석 활동 및 기술의 산업화 연계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식정보 인프라의 한 축인 정보분석 분야를 확대 발전시켜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에 가공정보의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의 실현을 통하여 국가 연구개발 경쟁력의 핵심분야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활용되고 있는 기존의 정보자원인 DB, 정보분석 분야에 연구인산량 분야와 슈퍼컴퓨팅 분야를 융합한 정보자원의 공유활용체제로 개편하여 연구활동의 근간지원을 위해 실용과학기술 및 관련 산업기술 정보, 고성능 컴퓨팅, 연구인산량, 정보분석 등 이 네 가지 기능의 상호연계를 통한 지식정보회의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이제 세상은 초고속망 및 인터넷시대에 맞는 유통망, 고성능 컴퓨팅 파워기반의 첨단정보유통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시대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도약을 위해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기지며, 특히 산업화시대에서 20년 이상 밀어졌던 일본과의 격차를 정보화 측면에서는 추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보인프라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받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와 같은 전환의 시기에 앞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국가·사회에 기여할 것인가를 냉정히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하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정보인프라의 기능과 성과를 다발공하는 일대 변혁을 주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국가지식정보인프라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한 적절한 사업 및 연구영역을 적극 개발, 국가지식정보인프라 권담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KIST의 장기목표는 2000년대 초까지 세계 정상급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시켜 21세기의 과학기술선진국이 되도록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 세 천원의 국가적 차원의 지식정보인프라를 제대로 구축 환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관련 기관 여러분들의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하면서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월 3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조영희